

마을愛 꽃 피는 주민들의 사랑방



잉계마을 북카페 '마을愛(애)'는 마을 도서관, 카페, 교육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주민들이 운영하면서 함께 공간을 꾸미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주희 작 '유유자적'

21가지 '상상'

옥과미술관, 9월18일까지 광주·전남 홍익동문전

도립 전남옥과미술관은 9월18일까지 미술관 아산1실에서 제19회 광주·전남 홍익동문 '상상'전을 연다. '홍익동문'은 홍익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광주·전남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인들의 모임이다. 회원들은 이번 전시에서 전시 주제만큼 다양한 사고와 창의적인 상상력이 담긴 작품들을 전시한다. 참여 작가는 강철구·고창훈·곽우섭·권하주·김석봉·김주희·김창식·김희준·남호정·민명선·변경섭·신도원·오승진·이명숙·이봉규·이부열·주지수·최석·최향·탁해성·허대중 등 21명이다. 작가들은 회화, 디자인,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상상력이 어떻게 창조된 동력이 되는지 등을 이야기한다. 문의 061-363-727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휴먼 플라나리아' 광주무용제 대상

인터내셔널 발레 컴퍼니, 9월 전국무용제 참가

인터내셔널 발레 컴퍼니(단장 정정은·사진)의 '휴먼 플라나리아'가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가 주최한 제23회 광주무용제에서 대상과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지난 19일 광주문화회관소극장에서 막을 내린 이번 공연에는 모두 6개 팀이 참여했다. '휴먼 플라나리아'는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다. 다세포분열을 통해 자신의 몸을 쪼개 다시 살아가는 플라나리아처럼 거듭된 진화와 자기복제와 무수한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무용수들의 탄탄한 기량과 표현력이 뛰어나고 테크닉과 안무 구성이 잘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 작품에서 주역을 맡은 강병창(광주시립무용단원)씨는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인터내셔널 발레 컴퍼니는 오는 9월 인천종합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23회 전국무용제에 광주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광주 무용은 지난해 서영무용단의 '작창'을 비롯해 인지형&광주현대무용단의 '자매류', 로얄발레단의 '티핑포인트 37.5도'가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 올해 광주팀이 어떤 성과를 낼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가 흐르는 공간

9 잉계마을 북카페 '마을愛'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잉계마을은 50여 년 전만 해도 마을 사람들끼리 형제처럼 지내는 여느 시골 마을이었다. '잉계'(孕鵜)라는 이름은 마을 옆 말미산에서 바라본 옛 마을 '동작'과 '서작'의 형상이 암탉이 알을 낳는 형국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도시화된 잉계마을은 지금은 새터민과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국제마을'이 됐다. 하지만 잉계마을은 광주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도시 발전'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주민 절반 이상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정도다. 원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고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잉계마을에는 아직도 옛 시골마을에서나 찾을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이 남아있다. 지난 2012년 '우산동 투게터 위원회'와 '우산동 복지네트워크'가 주민들과 함께 '잉계마을 복지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지난해 1월 우산파출소와 주공연립아파트 인근에 문을 연 잉계마을 북카페 '마을愛(애)'(이하 마을애)는 잉계마을 공동체 사업의 거점 공간이다.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이며, 공동체의 교육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 18일 찾아간 마을애 입구에는 주민과 재능기부 단체 회원들이 그린 벽화가 가득했다. 건물이 오래돼 자칫 삭막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화사한 벽화로 친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마을애 안으로 들어서자 더위를 피해 찾아온 학생들이 시원한 팥빙수를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벽면에는 빼곡한 책과 함께 주민들이 만든 공예품이 곳곳을

장식하고 있었다. 공간을 나눠 만들어진 세미나실에서는 주민 교육이 한창 진행중이었다. 마을애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산동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박병기 원장이 174㎡의 공간을 무상으로 내줬고, 이후 주민들은 책 모으기 등을 통해 힘을 보탤었다. 처음 1000여 권에 불과하던 서적도 불과 1년 만에 2600여 권 이상으로 늘었다. 공간 곳곳을 꾸미고 있는 벽화와 공예품 등은 주민과 학생들이 직접 마을애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참여하면서 만든 작품이다. 주민이 꾸미고, 주민 주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모두에게 개방한다는 것이 마을애의 매력이다. '마을애'는 이미 주민들에게는 명소다. 또 '잉계마을 복지 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함께 모범사례로 알려지면서 '벤처마케팅'을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마을활동가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초에는 광주시교육청이 펴낸 4학년 1학기 사회와 교과서 '광주의 생활'에 소개되기도 했다. 마을애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보거나 다양한 체험 강좌에 참여한다. 또 매달 한차례 주제를 정해 인문학 강좌를 열고, 정기적으로 한문교실, 공예교실, 한글교실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비정기적으로 음악회가 열리고, 주민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 등 작품을 전시하기도 한다. 벽면에 걸린 작은 칠판에는 프로그램 등 일정이 빼곡했다. 올 초에는 우산동 복지네트워크와 주민 주도로 마을과 이웃의 이야기를 담은 180페이지 분량의 마을잡지 '잉계마을에 살다'를 펴내기도 했다. 주민들이 취재하고 편집해서 만든 잡지에는 800살 된 마을의 느티나무, 사람 키보다 두 배 이상 자란 선인장, 마을 사람이 이야기 등이 담겼다. 마을애를 중심으로 잉계마을을 마실길 만들기 사업, 벽화 그리기 사업 등을 해온 복지네트워크는 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21일부터 매주 두 차례 우물증 증세를 보이는 노인들의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통기타 강좌도 준비 중이다. 마을애 관장을 맡고 있는 우산동 복지네트워크 김정태 부위원장은 "마을애가 음식을 나눠먹고, 주민들의 이야기 꽃이 피어나는 '마을회관'이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942-1088. /글·사진=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 광산구 주민자치로 프로그램 모두에 개방하는 '복합문화쉼터' 매달 셋째주 '토요학교' 진행 인문학강좌, 한문·공예교실 등 운영

Advertisement for KJB (Korea Job Bank) celebrating 32 years of operation. It features a logo with a horse and rider, and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cross Korea, including Seoul, Busan, and Incheon. The text emphasizes digital technology and customer service.

Advertisement for '소파 식탁 보신판매' (Sofa Dining Table Restoration Sale) by Hong Space Furniture. It features a large, stylized title and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a store in Gwangju. The ad also mentions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런칭' (Premium Tongwonmok Furniture Launch) and '가정용/업소용 150~400cm' (Home/Commercial 150~400cm).